

선재국어 2012. 국가직7급 기출문제

2012 국가직 7급 총평

		문 항 수
국어문법	통사론 형태론 2 의미론 1	3
국어규범	한글맞춤법 1 띄어쓰기 1 올바른 문장쓰기 2 (공문서 쓰기 1) 어휘 선택 1	6
말과 글	단락순서 1 문장순서 1 추리적 이해(괄호 넣기 1) 내용 이해 1	4
현대문학	수사법 1 시의 이해 1	2
고전문학	한시의 이해	1
어휘와 한 자	관용적 표현 1 한자 1 한자성어 2	4

이번 국가직 7급 시험은 지난 번 치러진 국가직 9급 시험과는 다르게 전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9급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한자가 출제됨은 물론, 어휘, 독해, 문학 등 모든 영역에서 일정한 비율로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유형인 지식형 문제가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난도 있게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형태론과 통사론을 통합형으로 낸 문제(인책형 문 4 번) 등은 기본 이론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무난히 풀었겠지만, 단순히 기출되었던 국어 규범을 암기하며 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최근의 모든 시험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문서 바로 쓰기 문제 역시 출제되었는데, 이 역시 문제풀이를 통해 올바른 문장 쓰기를 연습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달랐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관용적 표현,, 언어표현 등의 기본 어휘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 점 등은 앞으로의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국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기본 어휘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예년 시험에 비해 난도가 낮아진 부분은 현대 문학과 고전문학이며, 특히 고전 문학은 예년의 7급 시험에 비해 출제 비중 및 난도가 낮아졌다고 평가된다. 독해 역시 7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 내용 배열하기가 2문제가 출제되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한 학생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국가직 7급 시험을 본 뒤, 많은 수험생들이 국가직 9급 시험을 떠올렸을 것이다. 9급 시험에서 한자 등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7급도 그리하리라고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결국 공무원 국어 시험은 일정한 국어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언어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국어 지식은 확실히 익히되, 한자를 포함한 기본 어휘력을 강화하고, 기본 독해 및 문학 이론 등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첩경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시험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한 수험생들께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한다.

2012. 국가직 7급 해설. 이선재.

문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바른 것은?

- ① 꽃잎이 한잎∨두잎 강물에 떠내려가∨버렸다.
- ② 이곳에서 주문할 물품의 개수는 스물내지∨서른 정도입니다.
- ③ 부장∨겸∨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신 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 ④ 김∨동식∨박사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신∨만큼 큰 상을 받게 되셨다.

정답:①

<해설>* <2013 선재국어> 221쪽

띄어쓰기 규정 중, 원칙과 허용에 대한 문제이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올 때에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 따라서 ‘한 잎 두 잎’과 ‘한잎 두잎’이 모두 허용된다. 또한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쓸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을 허용하지만, 본용언이 합성동사일 경우는 띄어쓰기만을 허용한다. 따라서 ‘떠내려가 버리다’로만 써야 한다.

<오답풀이>

- ② 연결이나 열거의 경우는 띄어 쓴다. 따라서 ‘스물 내지 서른’으로 써야 한다.
- ③ 성과 이름은 붙여 쓰지만, 호칭이나 관직명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김부장님’으로 써야 한다.
- ④ 위의 ③과 동일한 이유로, ‘김동식 박사’로 써야 한다.

문 2. 밑줄 친 관용 표현 중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낙숫물이 댕들을 뚫는다는데, 계속 노력하면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아이고, 너같이 느려서야 뭘 하겠니? 갓 쓰고 나가자 파장 하겠다.
- ③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으라는데, 무슨 일이든 마음 놓지 말고 확실하게 하렴.
- ④ 설 흰 무 같이 야무지고 똑똑하기가 아주 비할 데가 없어.

정답 : ④

<해설> * <2013 선재국어>1397쪽, 1399, 1401쪽

설 흰 무 : 가을에 뽑아 둔 무가 해를 넘기면 속이 비고 맛이 없다는 뜻으로 한창때가 지나 불 것이 없게 됨을 이르는 말.

- ① 낙숫물이 댕들을 뚫는다 : 비록 약한 힘이라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지 안 되는 것이 없다.
- ② 갓 쓰고 나가자 파장된다. : 몹시 행동이 급뜨다. 게으르면 무슨 일이나 성공하기 어렵다.
- ③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 : 틀림없을 듯해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낭패가 없음을 이르는 말. 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문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겨울철에는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제격이다.
- ② 너는 웬 군소리가 그렇게도 많니?
- ③ 맛있는 음식 때문에 군침이 돈다.
- ④ 군불에 밥 짓기.

정답 : ①

<해설> * <2013 선재국어> 94쪽-95쪽

선재국어 94쪽 보충자료의 예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군고구마’의 ‘군’은 ‘굽다’의 뜻을 지닌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고 있다.

예) 군것/군글자/군기침/군말/군살/군침/군불.

문 4.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발 비켜서야 한다.

- ① ‘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품사는 같다.
- ② 이 문장은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 ③ ‘한발’은 ‘한√발’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④ ‘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 ‘헌 물건’의 ‘헌’을 들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2013 선재국어> 103쪽 보충자료 문제 유형 일치.

단어의 개수는 자립의 단위를 세되, 이에 조사를 더해야 한다. ‘-이다’의 경우, 일부 학자들은 어미나 형용사로 보지만 현재의 7차 문법교과서에서는 용언처럼 활용을 하는 특수한 조사, 즉 서술격조사로 본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단어의 개수는 모두 11개가 된다.

* ‘너-는 -학생 -이므로 - 그 - 위험한-일-에서-한발-비켜서야-한다’ : 총 11개

<오답풀이>

- ① ‘너’의 품사는 대명사, ‘그’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 ③ ‘한발’은 어떤 행동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남을 나타내는 한 단어이다. 따라서 붙여 써야 한다.
- ④ ‘위험한’은 형용사이며, ‘헌’은 관형사이다. 따라서 품사의 종류는 다르다.

문 5.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은?

- 그녀는 ㉠아름다운 꽃을 품에 ㉡가득 안고 왔다.
- 하루 종일 ㉢비가 왔다. ㉣다행히도 마음만은 즐거웠다.

- ① ㉠:관형어
- ② ㉡:부사어
- ③ ㉢:주어
- ④ ㉣:독립어

정답:④

<해설> *<2013 선재국어>102-103쪽

문장성분이란 문장을 이루는 요소로,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다행히도’는 주로 서술어나 다른 부사 및 문장을 꾸미는 부사어에 해당된다.

문 6. 예문의 밑줄 친 부분과 그 수사(修辭)적 유형이 같은 것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 김동명, '내 마음은' 중에서 -

①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屈辱)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② 님의 사랑은 뜨거워

근심 산(山)을 태우고 한(恨) 바다를 말리는데

③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④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정답:②

<해설> * <2013 선재국어> 748쪽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 쓰인 수사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과의 동일성에 기초한 은유법이다. 이러한 은유법이 쓰인 예는 ②인데, '근심'과 '한'을 각각 '산'과 '바다'라는 보조 관념과 동일시켰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같은'이라는 표현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힌 직유법이다.

③ '목숨을 빼앗다'라는 표현과 '죽음을 주지 않다'는 표현이 모순적 진술이므로, 역설법이다.

문 7.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그뿐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이, 즉 지기자(知己者)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버릴 수 있어야하며, 더불어 은혜는 은혜대로, 원수는 원수대로 자신이 받은 만큼 되갚기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나) 무공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협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협이란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정신에 입각하여 살신성명(殺身成名)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 또는 그러한 실천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여야 하며,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 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신의(信義)를 목숨보다도 중히 여길 것도 강조되는데, 여기서의 신의란 상대방을 향한 것인 동시에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라) 무와 더불어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협’의 개념이다. 무협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협이란 무덕(武德), 즉 무인으로서의 덕망이나 인격과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는 곧 무공 사용의 전제가 되는 기준 내지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라)-(가)-(다)-(나)
- ② (라)-(다)-(가)-(나)
- ③ (나)-(다)-(라)-(가)
- ④ (나)-(다)-(가)-(라)

정답:②

7급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 단락의 배열에 대한 문제이다. 정보를 올바르게 배열하기 위해서는 화제를 정확하게 잡은 뒤, 연결되는 정보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접속어나 지시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라) 무협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협의 개념 - (다) 협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 (가) 협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 (나) 협의 정의 (요약)

문 8. 다음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봄 길'-

- ①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부정적인 상황에 한탄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리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나 활달한 태도가 드러난다.

정답:②

제시문의 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이 있다는 태도, 즉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문 9. 번역 투의 표현이 아닌 문장으로만 짝지은 것은?

- ① ○ 나는 부모님에 의해 예의 바르고 친절하 아이로 자랐다.
○ 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자고 나가는 곳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
- ② ○ 이번 방학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학내 폭력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는 자숙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 ③ ○ 내 고향에는 아직도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다.
○ 이런 짓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④ ○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오늘 조회 시간에는 학교 문제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

정답:③

<해설> *<2013 선재국어> 412쪽

- ① ‘~에 의해’와 ‘~에게 있어서’는 번역투의 문장이다.
- ② ‘계획을 가지고 있다’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번역투의 문장이다.
- ④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번역투의 문장이다.

두 번째 문장의 경우, 물주 구문인 동시에 관형절이 여러 개 안긴 문장이다. 따라서 ‘오늘 조희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을 하셨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문 10.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된 것은?

- ① 웃니, 찻집, 두렛일
- ② 굵직하다, 넓직하다, 높다랗다
- ③ 그렇잖다, 만만찮다, 적잖다
- ④ 양심(良心), 유행(流行), 성공율(成功率)

정답:③

<해설> *<2013 선재국어>96쪽 및 한글맞춤법 참조.

준말에 대한 문제이다. ‘-지 않다’는 ‘-잖다’로, ‘-하지 않다’는 ‘-찮다’로 축약된다.

<오답풀이>

- ① ‘윗니’로 써야 한다.
- ② ‘널찍하다’로 써야 한다.
- ④ 두음법칙에 대한 문제로, ‘성공률(成功率)’로 써야 한다.

문 11. 다음 작품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 ① 농촌에서 노동하는 삶
- ② 벼슬을 하는 지식인의 삶
- ③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삶
- ④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삶

정답:③

<해설> * <2013 선재국어> 1292쪽

정약용의 한시 '타맥행'이다. 이 시는 선경후정의 사상전개를 취하고 있는 시로, 앞에서는 농민들의 노동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뒤에서는 이를 본 뒤의 심정을 읊고 있다. 특히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라는 구절을 볼 때,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③이라 할 수 있다.

문 12. 다음 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말다운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글 속의 문장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선이 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서로 호응하는 성분 간의 관계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 ① 철수는 지금 당장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 ② 문화 결손은 교육학에서, 어린이가 자라면서 어떤 문화적인 환경에 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잘못이다.
- ③ 2년 전 당산의 나무를 건드린 이 마을 사람 하나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 ④ 보안과 관계된 사항에는 각종 비문뿐만 아니라 부대 위치 및 지휘관의 신상, 활동 등도 포함된다.

정답:④

<해설> *<2013 선재국어>404쪽 참조

문장 성분의 호응에 대한 문제이다.

- ① 두 번째 절의 ‘성급한 결정이었다’의 주어가 없으므로, ‘이는 ~ 결정이었다’의 형태로 써야 한다.
- ② 주술 호응이 맞지 않음은 물론, ‘교육학에서’라는 부사어와 호응되는 성분이 없다. ‘교육학에서 정의내리는 것에 따르면, 문화 결혼이란 ~을 말한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 ③ ‘당하다’와 호응하는 주어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문 13. 다음 예문에서 이완의 처지를 반영한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변 씨는 이완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완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 했다. 허생은 못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 씨는 이완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완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 지도 않았다. 이완이 몸 둘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 ① 門前薄待, 坐不安席
- ② 狐假虎威, 威風堂堂
- ③ 優柔不斷, 騎虎之勢
- ④ 虎視眈眈, 威風堂堂

정답:①

<해설> *<2013 선재국어> 4권 한자성어 참조

이완을 밖에 오래 세워둔 것, 그리고 그가 몸 둘 곳을 몰랐다는 점을 참고할 때 적절한 사자성어는 ‘門前薄待(문전박대), 坐不安席(좌불안석)’이다.

* 坐不安席(좌불안석) :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오답풀이>

- ② 狐假虎威(호가호위)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威風堂堂(위풍당당) : 풍채나 기세가 위엄 있고 떳떳함.
- ③ 優柔不斷(우유부단) :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

騎虎之勢(기호지세) :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虎視眈眈(호시탐탐) :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봄

문 14. 다음 고사성어와 그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姑息之計:멀리 보고 심사숙고한 계책
- ② 不刊之書:영구히 전하여 없어지지 않을 만한 좋은 책
- ③ 十日之菊:국화가 최고로 개화한 상황으로 어떤 일의 절정
- ④ 浮雲之志: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마음

정답:②

<해설> *<2013 선재국어> 4권 한자성어 참조

不刊之書 (불간지서) :영구히 전하여 없어지지 않을 만한 좋은 책. 길이길이 전할 불후의 양서

<오답풀이>

- ① 姑息之計(고식지계):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른다.
- ③ 十日之菊(십일지국): 한창때인 9월 9일이 지난 9월 10일의 국화라는 뜻으로, 이미 때가 늦은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浮雲之志 (부운지지) : 뜬구름과 같은 일시적인 부귀공명을 바라는 마음.

15. 다음 예문들을 문맥이 통하도록 배열한 것은?

- ㄱ. 하지만 덴마크의 왕 프레데릭 3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그것을 세 번 반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 ㄴ.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운 매체의 효과가 ‘공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ㄷ. 발젠슈텐이 코펜하겐에서 ‘마술 환등’을 시연했을 때의 일이다.
- ㄹ. 신하들 앞에서 군왕으로서 용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 ㅁ.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해골이 등장하는 모습에 모두 겁을 집어 먹었다.

① ㄷ-ㄹ-ㄱ-ㄴ-ㄷ

② ㄷ-ㄹ-ㄱ-ㄴ-ㄱ

③ ㄱ-ㄷ-ㄹ-ㄱ-ㄴ

④ ㄱ-ㄷ-ㄴ-ㄹ-ㄱ

정답:①

<해설>

문장 배열(정보 배열) 문제이다. 제시문은 마술 환등에 대한 일화를 제시한 뒤 독자들의 관심을 끈 뒤, 글의 논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문 16. 다음 중 차별적 언어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① 그것은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일인 것 같군요.

② 이 소설은 작가의 처녀작으로, 당시 문단의 호응이 매우 컸던 작품입니다.

③ 살구 색 옷은 잘못 입으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서 입어야 합니다.

④ 복지 정책이 날로 더 발전하고 있으니, 미망인의 문제도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정답:③

<해설>

차별적 언어 표현이란, 성별, 인종, 민족 등의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단어 및 문장 표현을 말한다. ‘살구색’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살구색이나 연주황색을 나타냈던 ‘살색’이란 색깔명은 동양인의 피부 색깔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 언어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학부형 : 학생의 보호자를 아버지나 형, 즉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언어표현에 해당한다.

② 처녀작 : 처음으로 지었거나 발표한 작품을 지칭하므로, 성적 차별을 나타낸 언어표현이다.

④ 미망인 :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이므로 차별적 언어표현에 해당한다.

문 17. 다음 예문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양이는 영리한 편이지만 지능적으로 기억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 썩 머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와 더불어 고양이가 오랫동안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 때문이다. 주인이 슬퍼하면 고양이는 위로하듯이 응석을 부리고, 싸움이 나면 겁에 질려 걱정하고, 주인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한다. 고양이는 인간의 말을 음성의 고저 등으로 이해한다. 말은 못하지만 고양이만큼 주인 마음에 민감한 동물도 없다. 어차피 동물이라 모를 거라고 무시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 ① 말귀를 잘 알아듣기
- ② 행동의 실천을 바로 하기
- ③ 감정의 이해가 아주 빠르기
- ④ 주인에게 충성하기

정답:③

이 제시문의 괄호 안에는 괄호 뒤의 내용을 일반화할 수 있는 어구가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은 슬픔, 공포, 기쁨 등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감정’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문 18. 다음 예문 중 경험에 비추어 보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술은?

- ㄱ.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편이다.
- ㄴ. ‘따진다’는 말은 칭찬보다는 나무람의 뜻을 담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 ㄷ.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
- ㄹ. 따지는 것은 이지(理智)가 하는 일이며 감정(感情)의 소관사가 아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④

<해설>

경험에 비추어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이란 개념, 일반적 진리 등을 담고 있는 일반화된 진술을 말한다. 나머지는 모두 일상적 경험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ㄹ은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반적 진술이다.

문 19. () 안에 들어갈 한자어로 옳지 않은 것은?

소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비극(㉠) ‘엘렉트라’에서 “자식은 모든 어머니를 삶 가운데 붙들어 매는 닻”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살아가는 낙이 자식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자식 앞세

우는 고통을 다시없이 슬픈 참척(㉠), 빛을 잃어 천지가 캄캄한 상명(㉡)이라 일컬었다. 시인 김현승은 자식을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것”이라 했다. 암에 걸린 엄마가 뱃속 아기를 살리려고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아기를 낳고 곧 세상을 뜨면서도 엄마 된 행복에 거워한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모성과 부성에 대한 믿음까지 버릴 순 없다.

- ① ㉠:悲劇 ② ㉠:慘慼
③ ㉡:喪命 ④ ㉢:刻薄

정답:③

<해설>

喪明(상명) : 실명(失明: 앞을 못 보게 됨). 아들의 죽음을 당함이라는 뜻도 있다.

<오답풀이>

- ① 悲劇 : 비극(슬플 비, 연극 극)
② 慘慼 : 참척(참혹할 참, 슬플 척).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
④ 刻薄 : 각박(벗길 각, 얇을 박)

문 20. 다음 단어들을 넣어 공문서를 작성할 경우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쓰레기 분리 수거, 재활용 폐지(弊紙), 연간 3,000억 원, 외화 낭비, 환경 보호

- ① 우리 국민이 모두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하여 재활용 폐지, 연간 3,000억 원을 수입하지 않으면 외화 낭비와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② 전 국민이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하여 재활용 폐지를 연간 3,000억 원 이상씩 수입하지 않고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
③ 국민 모두가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한다면 연간 3,000억 원의 재활용 폐지 수입을 막아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④ 전 국민이 모두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한다면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재활용 폐지의 수입을 막아 외화 낭비도 경감시키고 환경 보호가 된다.

정답:③

<해설>

공문서 문장쓰기 문제에서 검토해야 할 점은 문장 구조의 호응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적절

한 어휘를 사용했는지, 어려운 한자어 및 외래어를 사용했는지 등이다.

① 문장의 연결이 어색한 경우이다. 특히 ‘외화 낭비와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맞지 않는다.

② ‘수입하지 않고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고 ~’ 등에서 연결 관계가 잘못된 경우이다. ‘수입하지 않는다면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고 ~’ 등으로 고쳐야 한다. 또한 공문서에는 되도록 쉬운 표현을 써야 하므로, ‘전 국민’보다는 ‘국민 모두가’가 더 적절하다.

④ 공문서이므로 ‘전 국민’보다는 ‘국민 모두가’가 더 절적하다. 또한 ‘외화 낭비도 경감시키고’는 ‘외화 낭비를 줄이고’로, ‘환경 보호가 된다’는 앞 절과의 호응을 고려하여 ‘환경 보호도 할 수 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